

SPORTS

2025년 9월 5일 금요일

광주FC, A매치 휴식기서 생존 방법 찾을까

10승 8무 10패 승점 38로 6위
팽팽한 격차 중위권 ‘초점전’

5경기 이후 스플릿 라운드
득점 11위 공격력 강화해야



프로축구 K리그1 2025시즌이 스플릿 라운드 진입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에 리그 6위 턱걸이 광주 FC는 강등 싸움을 피하기 위해 바

짝 긴장하고 있다.

K리그1은 지난달 30일 경기를 끝으로 2주간의 A매치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스플릿 라운드까지는 단 5경기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34라운드부터는 승점을 기준으로 파이널A(1위~6위)와 파이널B(7~12위)로 나눈다. 상위 스플릿에서는 정규리그 우승과 다음 시즌 아시아클럽대항전 출전권이 걸린 승부가 이어지고, 하위 스플릿에서는 2부 강등을 피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된다.

현재 K리그1은 압도적 선두 전북현대(19승 6무 3패 승점 63)와 최하위 대구 FC(4승 7무 17패 승점 19) 정도를 제외하면 큰 격차가 없다. 경기수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모든 팀은 당연히 1부리그에 생존할 수 있는 6위 안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상·하위 스플릿이 정해지면 3라운드로만까지와는 달리 전혀 다른 파이널 라운드 5경기가 펼쳐진다.

상위 스플릿에 있는 팀들은 모든 경기를 지더라도 1부 잔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하위 스플릿에 있는 팀들은 2부 강등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치러야한다.

K리그1 시스템상 12위는 내년 2부리그로 자동



지난달 3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8라운드 제주SKFC와 경기에서 승리한 광주FC 선수단이 300경기 출장을 달성한 안영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등이고, 11위와 10위는 각각 K리그2 클럽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올 시즌은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2위부터 11위까지 10개 클럽이 인접한 팀들과 점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의 경우 10승 8무 10패 승점 38점으로 리그 6위(득실차 -2)에 위치해있다. 리그 7위 강원FC(승점 38·득실차 -4)와는 승점차이가 없이 골득실차로 순위가 갈려있다. 위로는 리그 4위 포항스틸러스(승점 44), 리그 5위 FC서울(승점 40) 정도와 뒤집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래로는 리그 8위 울산HDFC(승점 34), 리그 9위 FC안양(승점 33)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광주가 상위 스플릿권에 있더라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이유다.

더욱이 파이널A에 오르면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진출권은 물론 우승이라는 동기가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나 파이널B에 속하면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더라도 강등권 탈출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중위권 팀들이 어떻게든 최소 6위를 확보해 파이널A를 노리는 이유다.

K리그1 12개 구단이 A매치 휴식기 기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는 홈구장에서 훈련을 진

행한다.

현재 광주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은 공격력이다.

광주는 올 시즌 28경기에서 28골을 기록, 이 부문 11위에 있을 정도로 골이 터지지 않았다. 리그 득점 최하위 강원FC(26득점)와도 차이가 크지 않다.

골 결정력이 있는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는 게 문제다. 여기에 광주는 올 시즌 8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아사니가 지난달 에스테고랄(이란)로 이적하면서 공격력이 약해진 상태다.

광주는 우선 휴식기 기간 체력과 컨디션을 최대

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연습 경기도 치른다.

오는 7일 오후 6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선문대학교와의 연습 경기에서 다양한 전술과 선수들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주전 선수들부터 젊은 선수들까지 고르게 활용하며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광주가 A매치 휴식기를 마치면 오는 14일 수원 FC와의 정규리그 29라운드에 돌입한다.

생존의 경계에서 서 있는 광주가 승점을 따내며 상위스플릿에서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청 이재성이 지난 3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6회 KTFL 전국실업단체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남자 100m 결승에서 1위에 올랐다.

광주시청 육상팀, 실업단체대학육상 ‘금빛 레이스’

이재성 남자 100m 우승... 김국영·고승환·김태호·강의빈 계주 1위

광주시청 이재성이 독감 투혼 끝에 ‘제36회 KTFL 전국실업단체대학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에서 우승했다. 도교체육상선수권 출전을 앞둔 고승환과 부상에서 돌아온 김국영은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재성은 지난 3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33에 결승선을 통과, 10초37의 김시은(경산시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재성과 함께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 라인-루르 유니버시아드 남자 400m 계주 금메달을 합작한 나마디 조엘진(10초41)이 3위로 뒤를 이었다.

이재성은 독감에 걸려 컨디션이 좋지 않았으나 100m 1위를 차지하는 실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독감 증세가 심해지면서 4일 출전 예정이던 200m는 나사지 않았다.

부상에서 돌아온 남자 100m 한국신기록 보유자 김국영(10초57)도 첫 실전에 나서 다음 달 열리는 전국체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광주시청은 남자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국체전에서 한국신기록 달성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김태호 김국영 강의빈 고승환이 호흡을 맞춘 광주시청은 39초34를 기록, 서천군청(39초73)과 안양시청(40초11)을 제치고 우승했다.

남자 400m 계주 한국신기록은 38초49. 국가대표팀(서민준·나마디 조엘진·이재성·이준혁)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다. 광주시청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다는 목표다. 이날은 이재성이 독감에 걸려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김국영과 고승환, 이재성이 호흡을 맞춘다면 한국기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미는 여자 400m에서 56초71로 동메달을 기록했다. 김서윤(장원시청·54초64)이 1위를 했고 광양시청 이아영(55초49)이 2위를 차지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이재성이 200m까지 뛰며 2관왕을 노렸으나 하룻밤 새 증상이 심해져서 200m는 뛰지 않았다. 고승환도 도교대회를 앞두고 계주만 뛰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다”면서 “전국체전에서는 400m 계주 한국신기록에 도전한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대비 총력

박종규 회장 “당구 종목 활성화에 주력... 손님맞이 최선”

광주에 당구 열풍이 불고 있다.

광주시당구연맹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2025 KBF 디비전리그 D2 캐롬 전국 리그(3~4라운드)’와 ‘2025 광주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국내 예선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디비전리그(D2)는 생활체육 5부부터 엘리트체육 2부까지 겨루는 승강제 리그로, 그동안 수도권에서 개최했던 대회를 이번엔 광주로 유치·개최하게 된 것이다. 1~2라운드는 지난 8월 경기 사흥에서 열렸고, 5~

6라운드는 10월 경기 고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8일부터 열리는 당구월드컵 국내 예선전 역시 오는 11월에 사상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을 대비한 전초전으로, 광주에서 개최하게 돼 광주 대표선수들에게 유리지역 추천 시드가 배정되기도 했다. 지난 8월 광주지역 예선에서 최완영, 박삼규, 김현중, 김연석(광주당구연맹 전무이사) 등 4명이 추천 시드를 활용해 선발돼 국내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에 출전하게 됐다.

당구월드컵 국내 예선에 참가할 주요 선수로는 안지훈, 차명중, 서창훈, 장성원, 강자인 등 국내 3쿠션 최강자들을 포함해 약 100명이다.

박종규 광주당구연맹 회장은 “모처럼 광주에 당구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취입 때 약속한 바와 같이 당구 종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오는 11월에 열릴 2025 광주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을 대비해 손님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등 당구를 통해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당구연맹은 지난 2022년 박종규 회장 취임 이후 회장에 전국3쿠션 대회, 3쿠션 오픈대회, 회장배 포켓9볼 대회 등 각종 광주지역 당구대회를 개최하며 당구 열풍을 몰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당구연맹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2025 KBF 디비전리그 D2 캐롬 전국 리그(3~4라운드)’와 ‘2025 광주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국내 예선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광주시당구연맹 소속 선수들이 정기평가전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전남 선수단, 전국시각장애인체전 종합 3위 패거

전남 선수단이 최근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회전’에서 종합 3위를 차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4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전남 선수단 44명이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그 결과 경기도, 서울특별시에도 이어 종합 3위에

올라 전남 장애인 체육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선수단은 8개 종목 가운데 골볼, 저시력축구, 쇼다운, 한궁, 실내조정 등 5개 종목에 참가했다. 그 중 골볼 남자부 준우승, 쇼다운 남녀부 동반 우승, 한궁 전맹 여자부 우승, 실내조정 여자 개인전 3위와 혼성 단체전 3위를 기록하며 각 종목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남도장애인체육회의 지속

적인 지원과 선수단의 헌신적인 노력이 맞물려 빛어낸 결실로, 선수 개개인의 열정과 끈끈한 팀워크가 빛난 결과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남 선수단이 보여준 팀과 열정이 모여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일궈낸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선수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하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